



전일빌딩 245에서는 오는 31일까지 이육사 시인의 글과 정신을 엿볼 수 있는 특별전 '이육사 내면풍경'이 열린다.



사적 제78호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고분군 전경.

(광주일보 자료)

살아 숨쉬는 이육사 시인의 글과 정신

“내 고장 칠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계절”로 시작되는 시 ‘청포도’로 유명한 이육사 시인은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을 펼쳤던 대표 저항시인이다.

이육사(1905-1944·사진)라는 이름은 투옥됐을 때의 수인번호가 264였던 것을 필명으로 쓴 것이다. 신석초 등과 동인지 ‘자오선’을 발간하고 ‘청포도’, ‘파초’ 등 상징적인 작품을 발표했다. 조선일보 기자로 활동하기도 했으며 항일과 문학으로 대변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았다.

일제시대 저항시인을 꼽으라면 ‘절명사’의 매천 황현, 만해 ‘님의 침묵’의 한용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의 윤동주, ‘광야’의 이육사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이육사는 형제들과 함께 독립운동단체 ‘의열단’에 가입해 항일독립운동을 펼쳤던 대표 시인이다.

이육사 시인의 육필 원고 등 다양한 자료를 볼 수 있는 전시가 열리고 있어 눈길을 끈다.

이육사문학관은 순국79주년 기념 ‘이육사 육필 특별전시’를 전일빌딩 245에서 오는 31일까지 연다. 이번 특별전은 광주(전일빌딩 245) 외에도 부산 가톨릭센터(10월 13일까지)에서 진행된다. 자료는 안동 이육사문학관을 비롯해 경북독립운동기념관 등의 협조를 받았다.

흔히 글씨를 보면 그 사람의 성품이나 다양한 면들이 보인다고 한다. 글은 어느 정도 ‘위장’을 할 수 있지만 글씨를 통해서도 인품이나 성격적인 면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일빌딩 245 전시실에 들어서면 마치 이육사 시인의 ‘내면’을 마주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시

순국79주년 기념 특별전 31일까지 전일빌딩 245

뿐만 아니라 시조, 한시, 서화, 사진 등 다채로운 자료가 전시돼 있다.

이육사는 시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전시실에서 보게 되는 그는 다양한 갈래의 글을 왕성하게 발표했던 문필가이자 논객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무엇보다 그는 글씨와 그림을 남긴 서화가이기도 하다.

전시 관계자는 “이육사는 다정다감한 내면의 인간이자 자신의 신념과 윤리를 관철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무릅쓴 의지와 용기의 사람”이라며 “이 전시를 통해 우리는 신화가 되어버린 과거의 이육사가 아니라 우리 앞에 살아 숨 쉬는 일상의 이육사를 구체적으로 되짚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사후 발견된 작품 가운데 눈에 띄는 작품은 ‘편복’과 ‘바다의 마음’이다. 편복을 뜻하는 ‘편복’은 당시 우리 민족이 처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사후 발견된 이후 1956년 발견된 ‘육사시집’에 처음 수록됐다. 2018년 국가등록문화재 제713호로 지정됐다.

‘바다의 마음’도 사후 발견된 원고다. 1974년 ‘나라사랑’ (외출회) 16집 이육사 특집호에 수록됐으며 2018년 국가등록문화재 제738호로 지정됐다. 시에는 당대의 우리 민족이 처한 국권 상실의 아픔 등이 깃들여 있다.

“물새 발톱은 바다를 할퀴고/바다는 바람에 입김을 분다/여기 바다의 鳶籠(은총)이 잠자고있다./



이육사 시인이 신석초 시인에게 보낸 글과 엮여도 전시돼 있다. 친구 집에 머물러 신석초에게 안부를 전한 엮서에는 시조 등이 실려 있다.

먹을 사용해 그린 ‘의의가페’는 난초 그림으로, 활달하면서도 선이 굵은 난의 줄기는 시인의 지조와 굳은 의지를 엿보는 듯하다.

시인의 장서 ‘예지와 인생’ 속표지에는 인장과 사인이 남아 있다. 시인의 인장과 사인이 남아 있는 것은 이 자료가 유일하며, 이육사의 또 다른 필명 ‘이활’ (李活)을 흘려 쓴 것이다. 그냥 보면 알 수 없지만 사진을 ‘반전’해 보면 시인의 또 다른 이름 이활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순병희 이육사문학관장은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이육사의 편지글은 그의 일상적이고 사적인 경험과 진솔한 감정을 보여 준다”며 “그것은 공식적인 기록에서는 만날 수 없는 내밀한 세계이며 학습과 풍문에 따라 구성된 기억을 보완하거나 재구성하게 한다”고 밝혔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해양 실크로드 이용한 마한 역사흔적 찾기

전남문화재단 문화재연구소, 31일부터 7개 테마 답사

마한은 고대 삼한 가운데 한강 유역에서부터 전라-충청지역까지 분포해 있었다. 전남지역 문화에 한 뿌리를 이루고 있으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웠다.

전남문화재단 문화재연구소(이하 연구소)는 ‘해양 실크로드를 이용한 마한의 역사흔적 찾기’ 프로그램을 오는 31일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프로그램은 연구소가 마한문화권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3년째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다. 마한문화권의 총 6개 코스를 7개 테마(교육기관, 마한 실크로드 유적, 종교, 문화예술, 기념관 등)를 중심으로 답사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31일 담양군 영산강발원지 용소에서 출정

식을 시작으로 영산강 뱃길을 따라 서남해안의 갈두항까지 마한 해양 실크로드 유적지를 탐방할 예정이다.

1코스는 31일 전남서부마한문화권을 탐방하며 담양, 장성, 나주, 영암, 목포 등지를 탐방한다. 다음달 예정된 2코스는 전남 동부권 마한문화권을 탐방하는데 순천, 여수, 고흥 등지를 둘러 본다.

이외에도 10월 6일, 27일-29일, 11월 10-11일, 16-17일 등 일정 및 권역별로 다양한 일정을 마련했다.

무료 참여, 누구나 신청 가능. 세부 내용은 전남문화재단과 the베스트여행사 홈페이지에서 확인. /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정지아 작가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작가’ 선정

구례 출신으로 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를 쓴 정지아(사진) 작가가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작가로 선정됐다. 한국서점조합연합회는 제7회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작가’ 작가 부문에 정지아 작가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들은 “한국 근현대사의 이데올로기 문제와 가족사의 갈등과 화해를 결합한 소설을 정지아 만큼의 기복성과 주제 의식을 담아 완성도 있게 쓸 수 있는 작가는 찾기 어렵다”며 “그런 그녀를 올해의 작가로 뽑지 않을 도리가 없었다”고 밝혔다.

정지아 작가는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작가 선정에 대해 “독자들과 서점인들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앞으로도 좋은 소설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정지아 작가의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지난 6월 전남대가 지역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



한 이끌고 있는 ‘광주-전남이 읽고 독하다’ 올해의 책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서점인이 뽑은 올해의 책 소설 부문에는 김보영의 ‘중의 기원답’이, 시·에세이 부문에는 신형철의 ‘인생의 역사’가 뽑혔다.

또한 유아동·청소년 부문에는 허정운·조원희의 ‘손을 내밀었다’가 선정됐다. 인문·교양 부문에는 이승원의 ‘우리는 왜 쉬지 못하는가’가, 과학 부문에는 허태임의 ‘식물분류학자 허태임의 나의 초록목록’이 선정됐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업사이클 뮤직 콘서트’ 공연 즐기며 환경보호 중요성 일깨워

이승규 작곡가 뮤직센터 ‘물꼬’

환경보호와 자원 재순환을 환기하는 음악 콘서트가 열려 화제다.

이승규 작곡가가 최근 문을 연(8월 3일자 광주일보 16면) 업사이클 뮤직센터 물꼬(광주 동구 중흥로 209번길 8)에서 지난 24일 ‘업사이클 뮤직 콘서트’를 개최했다.

공연은 이수산 바이올리니스트의 유니크 바이올린 연주로 시작했다. 레고 플라스틱 소재로 만든 유니크 바이올린으로 ‘G선상의 아리아’, ‘소멸과 소생’, ‘양림의 거리 중 이장우 가곡’을 연주했다. 이씨는 한예종에서 학·석사를 마치고 지난 2020년에 음반 ‘Devotion to Piazzolla’를 발매한 바 있다.

이어 농악분무등을 재활용해 만든 유니크 첼로 파르렛을 감상할 수 있었다. 박효은, 정아름, 김성복, 김가영 연주자가 ‘베사메무초’, ‘격정말야오 그대’, ‘진혼’, ‘위로’, ‘힘’을 합주했다. 이들은 정규 1집 앨범 ‘위로’를 발매하며 파르렛(사중주)



‘유니크 첼로 파르렛’ 멤버들이 농악 분무기통으로 만든 유니크 첼로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

공연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는 팀이다.

유니크 첼로와 바이올린 개발자인 작곡가 이승규는 피아노 모음곡 ‘잃어버린 동물의 사육제’를 선보였다. 생상스의 동물의 사육제를 모티브 삼은 이 곡은 앙상하게 아연 북극곰을 형상화한 ‘북극곰’, 시시포스 신화를 통해 삶의 몸부림을 연주하는 ‘쇠뿔구리’ 등 7개 곡으로 구성됐다.

쓰레기를 현 위에 올려두고 연주하는 ‘프리페어

드 피아노’ 퍼포먼스도 볼 수 있었다. 철제 체인, 맥주캔 등을 넣고 현을 물리적으로 자극하는 리듬은 독특함이 있었다.

이승규 작곡가는 “단순히 물질을 넣으면 이런 소리가 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보다는, 마음에 축적되는 ‘쓰레기’와 같은 것들을 비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글·사진·최유빈 기자 rubi@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백가쟁명’ 광주시 정책 논의

‘예술인이 시장이라면?’ 주제...31일 전남여고

지역 문화예술계, 시민네트워크가 함께 광주시에 필요한 정책을 논의하고 공론화 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일명 ‘2023 백가쟁명’.

광주문화재단(대표이사 황종년)은 오는 31일(오후 5시) 전남여고 체육관에서 백가쟁명을 연다.

‘예술인이 시장이라면?’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백가쟁명은 ‘문화예술이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서 비롯됐다. 모두 7개 분과(정당)를 구성해 진행된다. 이번 활동을 매개로 다른 자리에서일망정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를 꿈꾸자는 데 초점을 맞췄다.

7개 정당은 누구나 소중하당(불평등해소와 사회안전망 구축), 안전공정예술당(안전하고 공정

한 문화예술생태계), 춤추는 대자보당(교통, 문화예술일자리당(일자리), 기후위기 약당(기후위기), 같이잡시다당(도시계획), 삶은 예술이당(문화다양성)이다. 이 활동을 통해 시민은 ‘이상동몽’, 다른 자리에서 함께 ‘지속가능한 도시’를 꿈꾸는 것이다.

프로그램도 다채롭게 펼쳐진다. 각 분과(정당) 부스를 둘러보고 첼린저에 참여하는 ‘스탬프 투어’와 지속가능한 소비를 만날 수 있는 ‘지구농장터’도 체험할 수 있다. ‘자유아고라’를 통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으며 오후 7시부터는 각 분과(정당)별 정책 발표에 이어 시민 투표로 ‘올해의 정책’이 선정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건물·주택 리모델링, 신축, 지붕공사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건물 리모델링



갈라강판 지붕공사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농막

옥상스틸방수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원2길3(서원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